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 왕>

-강대진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 왕>은 ‘고대에 가장 유명했던 비극’이다. 이 작품이 이토록 유명해진 것은 대체로 아리스토텔레스 덕분이다. 그가 <시학>에서 이 작품을 비극의 대표로 놓았던 것이다.

‘사태 한가운데’서 시작하다

현대에도 오이디푸스라는 이름은 꽤 유명한데, 이는 정신분석학자 프로이트와 그가 발명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때문이다. 이 개념에 따르면, 그는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한 사람’이다. 자, 이 기본 요소를 가지고 어떻게 비극 작품을 만들 것인가? 소포클레스가 극을 시작하는 시점은 핵심적인 두 사건이 일어나고도 한참 지난 때다. 그러면 두 중요 사건은 어떻게 무대에 올릴 것인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는 이야기를 한편의 수사극, 하나의 수수께끼 극으로 만들었다.

테바이 도시에 갑자기 역병이 닥친다. 사람과 짐승, 땅이 함께 죽어간다. 사람들은 국왕에게 몰려가 도움을 청한다. 왕은 스팅크스의 수수께끼를 풀어낸 사람, 지혜롭기로 명성 높은 오이디푸스다. 그는 기민하다. 백성들이 요구하기 전에 벌써 처남 크레온을 델포이에 보내어 아폴론께 해결책을 물었던 것이다. 크레온은 신께서, 전왕 라이오스의 살해범을 찾아 추방하라는 명을 내리셨다고 전한다. 오이디푸스는 수사에 착수한다.

변해가는 질문

이제 수수께끼 풀이 시작이다. 첫 단계의 질문은 ‘왕을 죽인 자는 누구인가’이다. 아무 단서도 없으므로, 우선 눈먼 예언자 테이레시아스에게 도움을 청한다. 하지만 늦게야 나타난 예언자는 조언을 거부한다. 그를 달래다 못해 오이디푸스가 화를 내고 폭언을 퍼붓자, 예언자 역시 노하여 오이디푸스가 바로 범인이라고 지목한다. 정말 대담한 기법이다. 이제 작품이 겨우 1/3 정도 진행된 시점에 벌써 범인을 밝혔으니, 어떻게 진행하려는 것일까?

여기서 질문은 다른 것으로 바뀐다. ‘내가 그 살인자인가?’ 물론 오이디푸스는 그런 질문 자체를 거부한다. 대신 그의 기민하고 명석한 두뇌는 일련의 사건 전개 뒤에서 정치적 의혹을 잡아낸다. 그가 보기에 라이오스는 정치적 음모의 희생자고, 범인은 테이레시아스와 공모한 크레온이다. 그들은 이전 왕을 죽이고, 이제는 그 죄를 뒤집어 씌워 자기까지 제거하려는 것이다.

크레온이 달려와 억울함을 호소한다. 이 소란에 왕비 이오키타스가 나온다. 그녀는 이 모든 분란이 예언자의 말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는, 예언은 믿을 가치가 없다고 선언한다. 그러면서 자신의 경험을 근거로 내세운다. 자신과 라이오스 사이에 난 아이가 부모를 죽이리라는 신탁이 있어서, 아이를 산에 갖다 버려 죽게 했으나, 라이오스는 엉뚱하게 델포이로 가는 삼거리에서 도적들에게 죽었다는 것이다.

오이디푸스는 여기서 ‘삼거리’라는 단어에 놀라고 흔들린다. 그는 삼거리에서 어떤 노인 일행을 죽인 일이 있었던 것이다. 그는 라이오스가 언제 죽었는지, 일행은 몇이였는지, 그의 용모와 나이는 어떠했는지 확인한다. 그러고는 자신의 과거를 자세히 들려준다. 코린토스에서 보낸 어린 시절, 자기 부모님에 대해 의혹을 품게 된 일, 델포이에서 이상한 신탁을 받은 것, 그리고 삼거리의 폭력 사건. 이미 오랫동안 함께 산 부부지만, 두 사람은 자기들이

함께 엮힌 이 문제에 대해 작품 내 어디선가는 얘기를 나눠야만 한다. 소포클레스는 작품의 중심 부분에 그 대화를 배치했고, 우리는 이 지점에서 오이디푸스의 인생의 핵심과 마주친다. 어쩌면 크레온과 테이레시아스는 거기 닿기 위한 수단이었는지도 모른다.

나는 누구인가

한데 라이오스 피살 현장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한 명 있었다. 오이디푸스는 그를 불러서 정말로 라이오스가 ‘도적들’에게 살해되었는지 묻기를 원한다. 가해자가 정말로 여럿이라면 오이디푸스는 범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 증인이 도착하기를 기다리는 사이, 코린토스에서 어떤 사람이 찾아온다. 그곳 왕, ‘오이디푸스의 아버지’가 죽었으니, 오이디푸스가 그곳도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오이디푸스는 신탁의 나머지 부분을 두려워하여,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꺼린다. 코린토스 사람이 나서서 걱정 말라고 달랜다. 코린토스의 왕비는 그의 어머니가 아니라고. 사실은 자기가 어린 오이디푸스를 테바이의 목자에게서 받아 왕에게 건네주었다고.

오이디푸스는 자기 부모가 누구인지 확인하고자 그 목자를 만나보려 한다. 이제 자기 진짜 부모를 찾을 수 있게 되었다. 한데 공교롭게도 그 목자는 라이오스 피살 현장에서 유일하게 살아 돌아왔다는 바로 그 사람이다. 이 대목에서 이오카스테는 모든 사실을 알아챈다. 그녀는 오이디푸스의 추적을 만류한다. 하지만 그를 막을 수 없다. 그는 기필코 모든 진실을 알아내려 한다. 이제 그의 질문은 ‘나는 누구인가’이다.

드디어 그 목자가 도착한다. 어린아이에 대한 질문을 받자 그는 대답을 한사코 회피한다. 그가 사실을 털어놓은 것은 고문의 위협을 받고서였다. 이제 모든 것이 분명해진다. 오이디푸스는 라이오스와 이오카스테의 아들로서,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한 사람’이다. 그는 집 안으로 뛰어든다. 이오카스테를 찾는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목매달아 죽었다. 그는 그녀의 브로치를 뽑아 자기 눈을 찌른다.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했다고.

오이디푸스는 인간의 대표다

우리는 오이디푸스의 운명에서 어떤 의미를 찾아낼 것인가? 죄는 언젠가 벌을 받는다는 것? 하지만 오이디푸스는 죄가 없다. 부친 살해는 사실 정당방위였고, 어머니와의 결혼은 모르고서 받아들였을 뿐이다. 그래서 합창단도, 모든 사실이 밝혀졌을 때, 오이디푸스 개인의 잘못을 비난하지 않고 그저 인간의 운명에 대해 탄식한다. 오이디푸스는 인간들의 대표이다. 그가 마주친 새로운 수수께끼의 답은 어쩌면 옛날 스펅크스 때와 같은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나는 누구인가?’ 인간이다, 끝없이 계산하지만 파멸을 면치 못하는 인간.

그러면 이 작품은 운명극인가? 인간의 운명은 신들이 정해놓은 대로 흘러가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신은 인간의 앞날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예언할 뿐이다. 우리는 그것을 눈 찌른 뒤에 오이디푸스가 하는 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눈을 찌른 것은 자기 자신이라고. 실제로 이 작품에서 모든 일은 인간들의 선택과 의지에 따라 진행된다. 별 의미 없어 보이는 구절 하나를 보자. 코린토스 사자는, 자기가 좋은 소식을 전하면 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찾아왔다고 말한다. 그 사람은 신이 보낸 것이 아니라, 이득이 생길 듯한 곳을 찾아서 제 발로 간 것이다. 이런 선택들이 모여서 인간의 운명을 이룬다.

이 작품은, 우리 삶이 얼마나 불안정한 것인지, 인간의 지식이란 것이 얼마나 한정된 것인지 보여준다. 그래서 이성만능주의에 대한 경고가 된다. 인간은 신과 세계 앞에 겸손해야 한다. 그러면 늘 신의 뜻을 물으려는 사려 깊은 크레온이 우리의 모범인가? 그럴지도 모

른다. 하지만 독자들은 웬지 오이디푸스에게 끌리게 된다. 그에게는 크레온에게선 찾을 수 없는 내면의 불길이 있다. 무엇보다도 삶에 향한 굳은 의지가 있다. 그는 모든 사람의 저항을 물리치고 진실을 밝혀낸다. 그것으로 해서 자신이 파멸한다 해도 그는 알고자 한다. 그 강력한 힘은 작품 후반에 다시 나타난다. 그가 눈을 찌른 다음에 작품은 바로 끝나지 않는다. 그는 딸들을 안고 슬퍼하고, 크레온에게 자기를 얼른 추방해달라고 간청한다. 현대 독자가 보기엔 지루하다. 하지만 자세히 보라. 오이디푸스는 상대에게서 계속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 있다. 그는 다시 살아나고 있는 것이다. 흠과 한계를 가진 인간이지만, 삶이 무가치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무기력할 이유도 없다.

시대를 뛰어넘는 걸작이다. 독자들을 매료하는 여러 특징들이 있다. 아이러니들, 튼튼하게 짜인 구조, 사건 진행에 긴밀하게 맞물린 함창, 너무나도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들. 지면이 모자라 다루지 못한다. 직접 읽으시라고, 가능하면 소리 내어 읽으라고 권할 수밖에 없다.